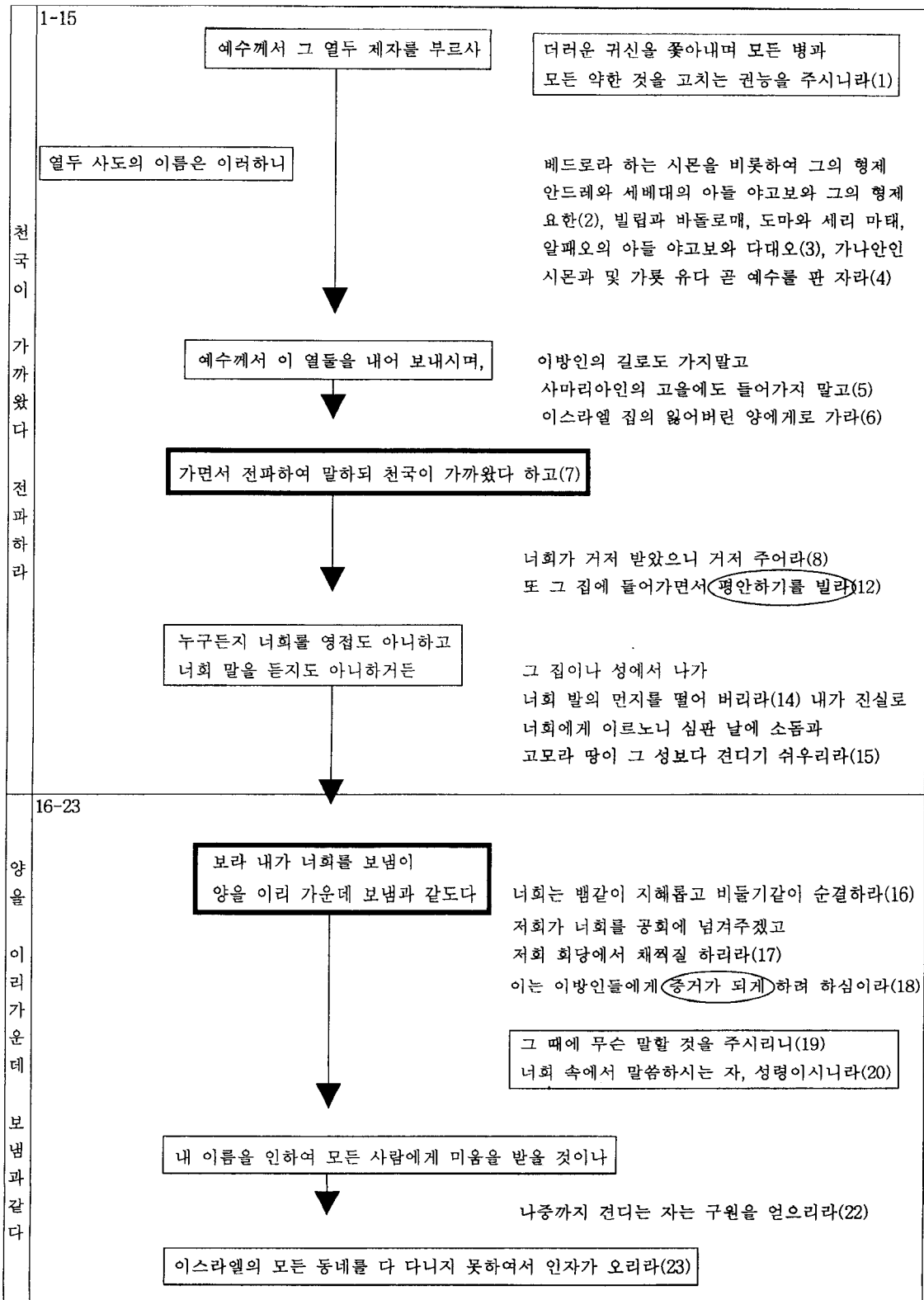


마태복음 10:1-23절 개관도표
 주제 :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행한 설교(1)



마태복음 10:1-23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설교

요절 : 7-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10장은 열 두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설교입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대별(大別)하면 1, 탄생으로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역사(歷史)가 있습니다. 2, 주님이 행하신 기사이적과 같은 행적(行蹟)이 있습니다. 3, 여러 경우에 말씀하신 설교가 있습니다. “역사, 표적, 교훈” 중에서 복음서의 뼈대는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역사”(歷史)에 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교훈과, 표적”은 이 역사(歷史)와 결부되어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주님의 “죽으시고 다시 사심”이 없는 기사이적과, 교훈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설교 패턴은 “역사”는 무시한 채 기사이적과 교훈에 중점을 두어 예수님을 구속주가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자, 사상가, 혁명가로 둔갑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설교 묶음입니다. 그런데 “산상설교와, 제자 파송설교”는 내용면에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에 있어서 구별이 됨을 간과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산상설교”는 주님께서 공생에 접어들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4:17) 하고 전파하시며 병을 고쳐주시니 “허다한 무리가 좃으니라”(4:25),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5:1-2) 하고 말씀하신 설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설교는, “무리” 중에서 열둘을 택하셔서 “열 두 사도”(10:2)로 삼으시고 이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설교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냐 하면 주님의 공생에, 즉 구속사역에 많은 진전(進展)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파송설교를 두 부분(1-23, 24-42)으로 나누어 다루고자합니다.

첫째 단원(1-15) 천국이 가까왔다 전파하라

둘째 단원(16-23)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첫째 단원(1-15) 천국이 가까왔다 전파하라

“예수께서 그 열 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① 본 단원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기본적인 교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열 두 제자를 부르사”(1상)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부르신 목적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1,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2,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3,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막 3:14-15) 하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 둘을 택하여 사도하 칭하셨다”(눅 6:12-13) 하고 말씀합니다.

②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1하) 합니다. 이는 단순히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을 정복해나갈 능력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즉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간다는 증거(12:28)인 것입니다. 이점을 바울 사도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陣)을 파(破)하는 강력(強力)이라”(고후 10:3-4) 하고 말씀합니다.

③ “권능을 주시니라”는 말씀을 좀 더 음미해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진도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권능”(權能)을 주어서 파송하셨습니다. 권능이란 “권세(權勢)와, 능력(能力)”의 준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열 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눅 9:1) 하고 이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능력과 권세”가 어떻게 다른가? 1. 먼저 “권세”(權勢)입니다. 이는 신분(身分)이나 직책(職責)과 관련이 있습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권세가 있고, 신하들은 대신들로서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1) 합니다. 형제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교통경찰이 큰 덤프트럭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2. 다음은 “능력”(能力)입니다. 이는 글자 그대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 즉 실력(實力)을 의미합니다. 권세가 있는 교통경찰이라고 힘으로 차를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권세는 있지만, 능력은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 즉 권능을 주어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④ “열 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2상), 왜 “열 두” 사도인가? 주님은 구약시대의 “열 두 지파”와의 일관성, 통일성에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완성의 책 계시록에는, “열 두 문에는 열 두 지파의 이름”이, “열 두 기초석에는 십 이 사도의 이름”(계 21:12-14)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열들을 내어 보내시며

① 명하시기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5-6) 하십니다. 이는 주님의 전도방식이, ㉠ 제한적(制限的)이며, 집중적(集中的)임을 나타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이 철패된 것은 오순절 이후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비로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하고, “이방인”의 전도를 명하셨습니다. 이는 합당한, ㉡ “순서”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나와서(요 4:22),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행 1:8)로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② 이렇게 하시는 의도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모 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모인 무리의 수가 한 일백 이십 명이나 되더라”(행 1:15) 한 것을 보면 이들이 주님의 공생애를 통한 결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28:19) 하실, 세계선교를 위한 준비(準備)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전도, 즉 추수는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은 후에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③ 이점에서 명심해야할 점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능력과 권세”, 그들이 전파할 “천국, 이 모두가 이제까지 주님께서 사역하신 그 사역을 계승하여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최후만찬 석상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 14:12)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일곱 교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 하니라”(계 2:26-27) 하십니다. 주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위임을 하고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④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님 혼자 일하셨으나 이제부터는 12명이, 그리고 70명(눅 10:1)이, 120명(행15), 3000명(행2:41), 수만 명(행 21:20), 백만, 천만, 천하 만민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가 한 사람이었으나 그가 죽으심으로 하늘의 별 같은 “작은 예수”가 탄생하기를 기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8) 하시면서, “일군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10) 하십니다. 여기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저”주라는 말씀입니다. 선교와 결부하여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일군을 먹이신다”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위해서 요를 받지 않았고,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고전 9:7. 12)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자신을 군사로 모집한 분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탁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⑥ “평안하기를 빌라”(12) 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14) 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신(史臣)인 전도자의 권위와,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세워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전파는 통사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설득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배척당한다고 해서 초라하거나, 가련한 신세가 아닙니다. 만일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의 위상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사랑”은 아침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응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15) 하십니다.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을 때,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띠끝을 떨어버리고”(행 13:51) 떠났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천국을 전파하는 평안의 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단원(16-23)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16).

① 본 단원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박해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16상) 하십니다. “양”이 제자들이라면, “이리”는 누구인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 산업(이스라엘)이 삼림 중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발하는 고로”(렘 12:8)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양육하셨는데 그 양들이 주인에게 으르렁거리며 덤벼드는 사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쫓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시 22:13)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유대인들이 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더욱, 2. “지도자들”이 이리와 사자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양의 탈을 쓴 이리”(7:15)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줄로 여겼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無知)와 곡해(曲解)가 이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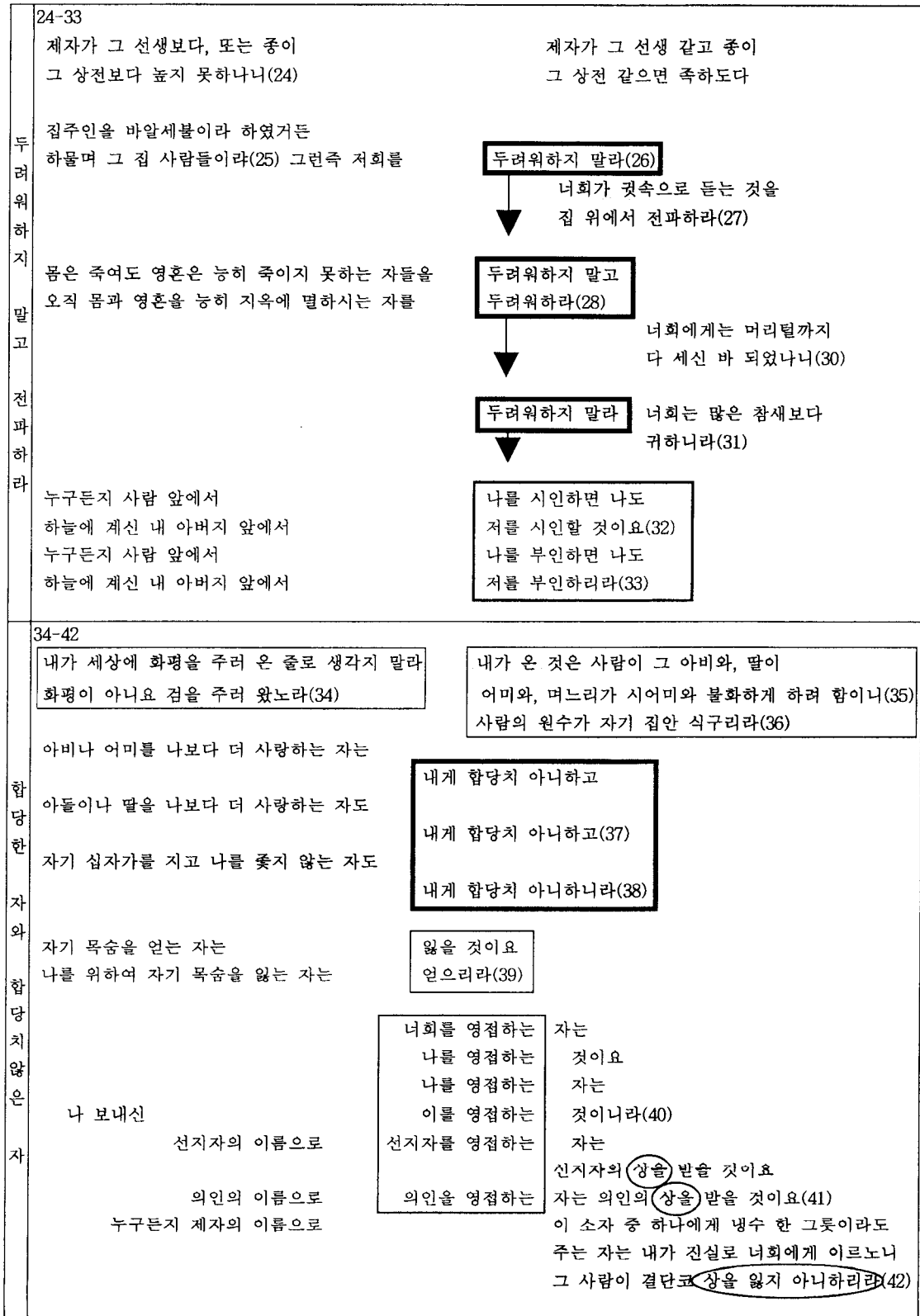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②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18) 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당하게 될 박해를 말씀함이지만, 목적은 “증거가 되게 하려 함”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떠나신 후에 문자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 끌려가 총독과 아그립바 왕과 배석한 고관들 앞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로마로 호송되는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행 26장, 27:24) 하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박해를 받음이 없었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런 계층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③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 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19-20) 하십니다. 이런 장면이 사도행전에서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성령이 충만하여 증거하는 베드로(행 4:8), 2. 성령이 충만하여 증거하는 스테반(행 7:55), 3. 성령이 충만하여 증거하는 바울(행 13:9) 등 사도행전의 “증거”는 성령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목에 걸고 다니는 장식용 십자가처럼 잘 다듬어져 있지만, 설교자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숨결을 느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얼마나 그리운 말씀인가?

④ “이스라엘의 모든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23) 하십니다.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꺾박 받을 제자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23) 하신 표현이 무슨 말씀에 이어서 주어졌는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22)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증거하라, 고난을 받으라, 끝까지 견디라” 하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박해받게 될 것이지만, 이것이 도리어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24-42절 개관도표
주제 : 전도자들이 명심해야 할 황금률



마태복음 10:24-42절, 전도자들이 명심해야 할 황금률

요절 :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본 문단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교훈의 계속입니다. 앞부분(1-23)이 일반적인 교훈이라면, 이 부분(24-42)은 “전도자들이 명심해야 할 황금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표에서 부각시킨 대로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 중요한 요점들은, “두려워할 것인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가”, “시인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그리고 “영접을 받게 되는 일과, 배척을 받게 되는 일” 등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24-33) 두려워하지 말고 전파하라
둘째 단원(34-42) 합당한자와 합당치 못한 자

첫째 단원(24-33) 두려워하지 말고 전파하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24).

①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전파하라”(27하)는 데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25상) 하십니다. 이는 제자도에 있어서 명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집 주인(주님)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25하), 즉 주님을 귀신이 들렸다고 배척을 한 그들이라면, 하물며 그의 제자들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이는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면서도 제자 된 우리가 자주 망각하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주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막아 죽인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기를 바라는 잘못 된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5:11), 그렇다면 이와 반대의 경우는 어떠한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눅 6:26), 즉 세상에 영합을 하고 타협하게 되면,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② 그러므로 전도자가 명심해야 할 첫째 황금률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부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세 번(26, 28, 31) 강조되어 있고, “두려워하라”(28) 하고 긍정적으로 한 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엇과 결부되어 있는가?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27)는 “전파”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③ 이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하신 공통적인 격려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러므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렘 1:17)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질려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겔 2:6)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사 58:1) 하십니다. 이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27하) 하십니다.

④ 그러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첫째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28상)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30),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장 하찮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말씀 앞에 형제의 심정은 어떠합니까? 그러므로 제자 된 자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28하) 하십니다.

⑤ 그렇다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교회를 잔멸하려는 바로, 느브갓네살, 네로와 같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그분이 심판 주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란 결국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몸이 죽는 것”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 아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베드로, 돌에 맞아죽은 스테반, 잠수를 당한 바울 등,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⑥ 전도자가 명심해야 할 두 번째 황금률은, “시인(是認)” 하라는 말씀입니다. “시인과, 부인”이라는 말이 각각 두 번씩 나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32-33) 하십니다. “사람 앞에서”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곧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고, “부인”한다면 곧 “영혼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문제가 결부되는 상황에 이르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한 주기철 목사님도 이 점이 가장 힘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원(34-42) 합당한자와 합당치 못한 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34).

① 전도자가 명심해야 할 세 번째 황금률은, “죽도록 충성”해야 할 군인정신입니다. 그 점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39) 하신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을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즉 싸움을 일으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의 병행귀절에서는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눅 12:51)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36) 하고 영적인 분쟁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당황케 하였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② 그렇다면, “검, 분쟁, 원수” 뭘이 어째서 유발되게 되었는가? 이 말씀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창 3:15) 하신 원복음으로 인도해줍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을 추종하는 “뱀의 후손”과, 그리스도의 제자 된 “여자의 후손” 간의 분쟁은 불가피한 것이라 하겠습니까.

③ 이점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었던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내

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고 회고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엄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로라”(딤후 2:3-4) 하고 격려합니다.

④ 그러므로 전도자가 명심해야 할 네 번째 황금률이, “합당치 아니하고” 라는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두 절 안에 세 번 등장하여 강조적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 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 하니라”(37-38)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이 오해되고 오용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35-36) 하신 것은, 영적 싸움의 불가피성과, 심각성의 일면을 드러내기 위해서라 할 것입니다.

⑤ 결론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39)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란 어떤 경우를 놓고 하신 말씀인가? 1,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여, 2, 주님을 부인할 경우에는 육신의 목숨은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비나 어머니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여 십자가를 벗어버릴 경우 세상적인 것은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얻는 자는 잃고, 잃는 자는 얻는다”, 이는 역설(逆說)입니다. 세상 풍조와는 반대로 사는 사람, 거대한 시류(時流)를 역류(逆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

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40) 하십니다. 40-41절, 두 절 속에는 “영접”이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이제 주님은 파송설교를 마치려 하고 있습니다. 파송설교는 “예수께서 이 열 둘을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5) 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전도를 듣는 저들의 반응이 어떠한 것인가? 이 문단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받게 될 축복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의도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42)는 말씀으로 파송설교를 마치시고 있는가?

② 그러므로 전도자로 파송 받는 자들이 명심해야 할 다섯 번째 황금률은, 정체성(正體性)입니다. 본래 12 사도들은 너무나 평범한 소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使臣)”(고후 5:20)의 자격으로 파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40) 하신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옥중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엡 6:19)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③ 또한 이 마지막 말씀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음”(16)을 아시는 주님께서 고난에 봉착하게 될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42) 하시는 것입니다.

④ 41-42절 안에는 “선지자의 이름, 의인의 이름, 제자의 이름” 하고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영접하는 자는 “베드로나, 요한”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부”를 영접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그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러 나아가는 전도자는 다윗이 말한 바와 같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삼상 17:45)는 이 정체성을 망각해서는 이니 됩니다.

⑤ 그러므로 전도자로 파송 받는 자들이 명심해야 할 마지막 황금률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기록하신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품에는 상호(商號)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라벨처럼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 된 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그 이름을 빛낼 수도 있고, 욕을 돌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전도자들이 명심해야 할 황금률은, “두려워하지 말고, 시인, 즉 담대히 증거할 것, 죽도록 충성할 것, 합당한 자가 될 것,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정체성과, 기록하신 이름이 걸려있음을 망각하지 말 것” 등입니다. 이를 명심하기만 한다면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